

위기의 건설사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최근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정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치싸움,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꼬집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야속함이 묻어났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3년 1.5%에서 지난해 -2.7%를 나타냈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약 1.2% 감소하면서 300조 원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 건설시장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올해 ‘보릿고개’를 걱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해 재무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내실경영을 통해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공격적인 투자를 꺼린다. 수익 규모를 꼼꼼

하게 따져 수수 경쟁도 자제하고 있다.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야 하는 만큼 수성에 집중하고 쫓는다.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중견·중소 건설사다. 부도 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2022년 이후 건설 공사비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다. 비용 상승은 재무제표에 반영돼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비용상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 공사 비용 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30.26을 기록했다. 공사 비용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11월 지수(100.97)와 비교하면 29.0%나 상승한 셈이다. 이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 비용에 생산자물가 지수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수치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도 겹쳐지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증가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년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기준 2만1480가구다. 전월 대비 1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

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라고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 건설사는 문 닫을 위기에 직면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에 달한다.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이들 기업 중 86.2%(25곳)가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시장이 살아나야 기업이 회생한다. 정부가 건설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건설투자는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높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향후 건설투자가 5조원 확대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5만4000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 산업 생산 효과는 5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 확대 방안은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이 꼽힌다.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최대 적도 ‘불확실성’이다. 안개가 걷혀야 앞으로 나아간다. 탄핵정국 마무리와 건설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김용·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헌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기지 수첩
박 태 흥
(정치경제부)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나오자 양당의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다만, 개헌론자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이들은 드물다. 개헌론은 한국 정치의 위기 때마다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 소재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와 탄핵심판으로 불리한 구도를 개헌론으로 돌파해보자는 의도가 짙고, 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나오는 야당의 개헌론은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흔들려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 만들어졌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돌아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극우 유투버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경도돼 ‘협치’보다는 밀실에서 군인들과 술을 마시며 폭력을 동반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당국이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대통령실발 악재로 여당이 참패하고도 정책 기초를 바꾸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태군 게이트가 터지자 돌연 계엄을 선포해버렸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던 ‘1호 영업사원’이 부정선거론 설파하고 중국을 타자화해 이념 논쟁을 벌여 거리의 극우에 힘을 실어줬다. 전세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자랑한 국격이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함께 무너졌다.

개헌론은 시기상조다.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여야가 국정협업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살인 민생입법과 연금개혁, 의정갈등 해소 등 시급한 현안에 손을 대야 한다. 군이 개헌을 하자면 극한의 갈등의 토대를 제공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협치 기반을 만들 필요는 있다.

/pth7285@

오늘의 운세 2월 14일 (음 1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48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힘내라.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게 되니 서운해 마라. 72년생 때를 놓쳐 열혈날 잔치에 열하듯 날뽕 친다. 84년생 음악회가 있으니 열심히 연습하도록.
- 소** 37년생 모두 자신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49년생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 받는다. 61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7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85년생 휴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 호랑이** 38년생 자손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 50년생 꽃동산에서 여유 있게 노니는 격. 6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4년생 고기는 씹어맛이 좋고, 말은 해아 맛인데. 86년생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운이 좋다.
- 토끼** 39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51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 63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라. 75년생 우울한 마음을 도서관에 가서 독서로 달랠. 87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 용** 40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52년생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협동과 소통으로. 64년생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 76년생 몇 달 전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시원. 88년생 유래 통쾌 상쾌한 하루.
- 뱀** 41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 53년생 경험 부족으로 이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65년생 뒤늦게 가정화로 관계수가 따른다. 77년생 발상을 전환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라. 89년생 차가 혼자서 가고 마음대로 멈춘다.
- 말** 42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54년생 주변에 부담은 주지 마라. 66년생 자녀들이 나의 가장 큰 협력자. 78년생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내 실력 부족. 90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 양** 43년생 애정 문제는 당분간 삼각관계를 조려한다. 55년생 돼지꿈을 꾸었으니 뜻이 이룬다. 6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79년생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91년생 미운 사람 딱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 원숭이** 44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56년생 경사가 겹치니 금상첨화. 68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든 참여. 80년생 티끌을 모으다 보면 태산이 될 수도. 9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저지니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 닭** 45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7년생 불평 마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69년생 부러지더라도 굴하지는 마라. 81년생 꾸밀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만족하라. 93년생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 개** 46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니 매사 조심. 58년생 새로운 계획은 생각을 신중히. 70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경계. 82년생 물건을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했으니. 94년생 태산이 되지 못해도 다시 도전해야.
- 돼지** 47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59년생 이력서 낸 곳에서 소식이 온다. 7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83년생 투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95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하는 것도 좋을 듯.



김상회의四季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첨단과학 시대에도 사주학을 찾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명리학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큰 재산을 손에 넣은 사람일수록 사주학을 소중히 한다. 그들은 운명론을 말하는데 자기가 살면서 겪은 일이나 결과를 운명적이라고 여긴다. 좋은 운세가 자기를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람이 저마다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사주는 그러한 운명을 보여주고 타고난 길을 알려 준다고 믿는다. 오래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유행한 적 있다. 사람의 일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머리 좋고 남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이 모두 성공할 것 같지만, 남보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성공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한다. 그런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운세다.

좋은 운세를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나 좋은 운세를 만나지는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질주하지 않고 때때로 멈춰서서 상황을 돌아본다. 그렇게 멈춰서서 어느 쪽 길로 갈 때 자기 운세가 더 힘을 발휘할 것인지 가능해본다. 운세가 힘을 잃는 시기에는 어떻게 좋은 운세를 끌어올 것인지 수시로 고민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있다. 운세도 그렇다. 스스로 준비하고 좋은 운을 맞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세가 열린다. 좋은 운세는 준비된 사람을 귀신처럼 찾아낸다.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감나무를 흔드는 사람이 감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자명하다.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그만큼 애를 써야 한다. 좋은 운세를 끌어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볼 일이다. 좋은 운세는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파벳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파벳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2		8	5			
1							9	4
7								2
1			3	9	7			5
			5		2			
2			9	4	6			8
6								9
4	9							2
		2	1		9	7	4	

5				1	7			3	2
3				8			5		
	6			5					
4			9		5				
7	2	1				4	9	5	
				7		2			4
					6			1	
		3	7						6
6	9		3	4					7

9	7	2	6	8	1	2	9	8
8	2	1	9	8	9	2	6	7
6	2	8	1	2	7	9	8	9
8	9	8	9	7	6	1	2	2
1	9	7	2	1	9	6	8	8
9	8	9	2	6	8	7	2	1
2	1	6	7	9	8	8	9	1
7	6	2	9	2	8	1	9	1
2	8	9	8	1	2	9	7	6

2	9	8	1	7	8	2	6	9
9	2	1	6	2	9	8	7	8
8	1	2	7	9	8	6	9	2
7	8	9	2	6	2	9	8	1
9	6	7	8	8	9	1	2	2
1	9	8	9	2	6	8	2	7
8	2	8	9	1	7	9	6	9
6	7	9	9	8	2	1	8	1
2	8	6	2	1	7	9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